

고대일본의 철학사상 발전에 준 조선민족의 영향

한명환*

【국문초록】

고대 일본의 문화가 조선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높은 문화수준을 가지고 있던 조선민족은 일찍부터 일본영토에 적극 진출하여 선진문화를 전파해주었으며 이 나라 문화발전을 선도해왔다. 여기서 이 중 철학사상의 발전에 준 영향만을 고찰하려고 한다.

일본의 오랜 역사책인 『고사기』에 의하면 285년에 백제국이 왕인을 보내어 『논어』 10권을 야마또 조정에 바쳤다고 한다. 왕인은 단순히 『논어』를 전달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는데 일본천황이 왕인을 태자인 우지노 와끼이라쓰코의 스승으로 임명하여 여러 유교경전을 배워주게 하였으며 왕인은 그 후 후미노 오비또들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이 기사는 왕인을 비롯한 백제사람들이 일본 땅에 유학의 시초를 열어 놓았고 유교사상을 본격적으로 보급해나갔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유교사상의 전파는 백제사람들 뿐 아니라 고구려 사람들에 의해서도 진행되었는데 『일본서기』의 담징에 대한 기록에 '그가 5경을 알았다'고 하였으니 그가 일본사람들에게 불교사상과 함께 유교사상도 적극적으로 선전하였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 사람들은 유교사상뿐 아니라 고대일본에 처음으로 불교사상을 전파하고 보급하였다. 불교의 초기 사상적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로써 남도 6종의 출현을 들 수 있는데, 이 남도 6종의 성립과 발전이 조선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일본 삼론종은 고구려의 중이었던 혜관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고구려의 삼론종불학자 도등으로 일본 삼론종의 중심이 이어지게 되고,

* 사회과학원 김일성주의연구소

이 밖에도 645년 '대화개신'이후에 아마또 정권에서 임명한 '10사'로 선발된 사람들은 고구려의 도등, 혜운, 령운, 상안 그리고 백제의 중들이인 혜묘, 혜린, 혜지, 민 등 모두가 고구려와 백제의 중들이었다. 이들에 의해 고대일본에서는 도량 이래의 고구려의 삼론종철학사상을 계승한 삼론종학파가 성립되게 되었으며 7세기 전반기 아마또 왕정의 지배사상으로 되게 되었다.

남도 6종의 다른 하나는 법상종인데 처음 백제계통의 불학자 도소에 의해 사상이 전해지고 이후 지붕, 지란, 지웅 등 신라의 불학자들 때부터 크게 부흥하게 된다.

남도 6종 가운데 8세기 전반부터 일본 불교철학계에 가장 큰 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화엄종이었다. 729년 일본에 건너간 후기 신라의 화엄종 불학자 심상은 대안사에 거쳐하면서 찾아오는 중들에게 '화엄경' 사상을 강의해 주었다. 일본 화엄종의 우두머리였던 로벤도 그를 찾아와 3년에 걸쳐 강의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특히 후기 신라의 불학자 원효의 저서를 일본에 많이 소개하였는데, 오늘날까지 일본학자들이 로벤 등이 심상을 통하여 신라 원효의 교학체계 쪽에 보다 친근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이 이 시대 일본인들의 화엄수용의 하나의 태도였다고 평하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남도 6종의 다른 종파들인 성실종과 구시종, 율종의 사상들도 우리나라 불학자들에 의하여 전해진 것이었다. 성실종은 백제의 불학자 도장에 의해, 구시종은 신라 지평법사의 영향으로, 율종 또한 마찬가지다. 이처럼 남도 6종은 거의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조선 사람들에 의해 성립되고 발전한 것이었다.

우리 민족에 의한 불교의 사상적 영향은 또한 원효와 그의 철학사상의 영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의연, 고변, 정경 등 많은 일본 불학자들이 원효의 저서들을 탐독하고 그의 사상을 자기의 사상형성에 받아들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조선 사람들에 의하여 유교, 불교와 같은 세련된 종교적 세계관들이 전파됨으로써 고대일본에서는 철학적 사유분야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미개로부터 문명예로의 도약이 이룩되게 되었다.

주제어 고대일본철학사상, 고대일본유교사상, 왕인, 담징, 고대일본불교사상, 남도6종, 혜관, 10사, 원효, 일본화엄종

고대일본의 문화가 조선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위대한 ○○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원래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먼저 발전하였으며 일본의 문화도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것입니다.”(『김일성 저작집』22권, 212면)

높은 문화수준을 가지고 있던 조선민족은 일찍부터 일본 령토에 적극 진출하여 선진문화를 전파해주었으며 이 나라 문화발전을 선도해왔다.

여기서는 고대일본에 준 우리 민족의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문화적 영향 중에서 철학사상의 발전에 준 영향만을 따로 고찰하려고 한다.

모든 문화 분야가 다 그러한 것처럼 고대일본의 철학사상도 조선 사람들에 의하여 개척되고 발전하였다. 오래 동안 유치한 원시신앙단계에 머물러 있던 일본에 유교, 불교와 같은 세련된 종교적 세계관들을 전파하고 그 보급을 주도해간 사람들이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조선 사람들이었다.

고대일본에서 유교사상의 전파는 유명한 왕인의 일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일본의 오랜 역사책인 『고사기』에 의하면 285년에 백제국이 왕인을 보내 『론어』10권을 야마또 조정에 바쳤다고 한다.

『론어』는 공자의 정치륜리학설을 설교한 유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서 왕인에 의한 『론어』의 전달은 곧 유교사상의 전달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왕인은 단순히 『론어』를 전달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일본천황이 왕인을 태자인 우지노 와끼이라쓰코의 스승으로 임명하여 여러 유교경전들을 배워주게 하였으며 왕인은 그 후 후미노 오비또들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후미노 오비또는 야마또 왕정에서 주로 문필사업을 맡아보던 유력한 문벌이었다. 이처럼 왕인은 유교경전을 전달해주고 태자의 스승이 되어 왕족들에게 유교사상을 직접 배워주었으며 그의 자손들까지 대대로 고대일본의

유교사상보급에 크게 이바지하였던 것이다.

왕인에 의하여 전화된 유교사상은 아마도 왕정의 통치배들 속에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속일본기』에 의하면 응신천황의 초청에 의하여 백제의귀수왕(근구수왕)이 손자인 지소왕을 보냈는데 그는 일본에서 태자의 스승이 되어 '서적을 처음 전하고 유품을 크게 일으켰다.'고 한다.

이 기사는 왕인의 기사와 대단히 유사하므로 왕인설화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왕인을 비롯한 백제사람들이 일본 땅에 유학의 시초를 열어놓았고 유교사상을 본격적으로 보급해 나갔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백제사람들에 의한 유교사상의 보급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516년에 백제가 '5경박사 아야노 고안모를 바치고 박사 단야우니와 바꿀 것을 청했다.'고 한다. 5경 박사의 교체에 관한 기사는 그밖에도 자주 보인다.

5경박사는 유교의 기본경전들인 『역경』, 『시경』, 『서경』, 『례경』, 『춘추』에 정통한 유학자를 말한다.

『일본서기』의 편찬자들은 마치도 백제가 일본의 속국이 되어 박사를 계속 진상한 듯이 꾸며놓았으나 이것은 도리어 백제사람들에 의한 부단한 유교적 영향을 말해주고 있다. 유학자들의 끊임없는 래왕이 고대일본에서 유교사상의 전파와 보급을 자극하고 그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고대일본에 대한 유교사상의 전파는 백제사람들뿐 아니라 고구려사람들에 의해서도 진행되었다. 『일본서기』에 실린 고구려의 중이며 화가인 담징에 대한 기사에는 그가 '5경을 알았다.'고 기록되어있다. 담징은 일본에 그림용 안료와 종이, 먹을 만드는 법을 전해주고 법륜사의 금당벽화를 그려준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한 담징에게 '5경을 알았다.'는 기사를 첨부한 것은 그가 유교경전들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깊었으며 일본사람들 속에 불교사

상과 함께 유교사상도 적극적으로 선전하였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고구려사람들에 의한 유교전승은 고대일본에서 문필활동을 맡아보던 문벌인 후비또들 가운데 고구려계통의 씨족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찬성씨록』에 수록된 후비또들 가운데 고구려계통이라고 밝힌 씨족이 6개나 되는데 이것은 아마또 조정과 특별히 가까웠던 백제계통이라고 밝힌 씨족이 7개였다는 것을 놓고 볼 때 그와 거의 대등한 정도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유학자들은 문필활동을 통하여 지배계급의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인’, ‘덕’의 미사려구로 위장하고 합리화하며 유학사상을 선전한다. 따라서 이것은 고구려에서도 유학자들이 일본에 많이 건너갔으며 고대일본에 유교사상을 전파하고 보급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고구려, 백제를 비롯한 조선 사람들에 의하여 일본 땅에 유교사상이 전파되고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고대일본의 사회발전이 크게 촉진되게 되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 사람들은 유교사상뿐 아니라 고대일본에 처음으로 불교사상을 전파하고 보급하였다.

불교의 초기 사상적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남도 6종의 출현을 들 수 있다. 남도 6종(일명 나라 6종)은 나라시대(7세기 중엽~8세기 후반기)에 존재한 6개의 불교종파, 즉 삼론종과 성실종, 법상종과 구사종, 화엄종과 물종을 가리켜 말한다.

남도6종은 사이죠와 구우까이에 의하여 천태종과 진언종이 성립되기 전까지의 일본불교철학을 대표하며 일본의 초기 불교철학은 바로 이 남도 6종을 통하여 개척하게 되었다.

이 남도 6종의 성립과 발전이 조선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일본 삼론종은 고구려의 중이었던 혜관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625년에 ‘고마(고구려)왕이 중 혜관을 바쳤다.’고 한다. 또한 가마꾸라 시기의 일본 불학자 의연이 쓴 『3국불법전통연기』라는 책에서는 ‘혜관은 고구려사람으로서 수나라에 들어가 길장대사에게서 삼론의 취지를 전수받고 추고 13년 정월에 (일본에) 와서 원흥사에 머물러 공종을 널리 말하였다. 이 종을 널리 퍼다가 90살에 멸도하니 삼론종의 시조로 되었다.’라고 소개하였다.

의연이 쓴 것처럼 혜관은 수나라에까지 가서 삼론사상을 배우고 돌아온 고구려의 명망 높은 중이었다. 혜관이 수나라에서 스승으로 삼고 삼론사상을 배웠다고 하는 길장은 사실 고구려의 불학자였던 도량의 사상적 계승자였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배운 혜관의 삼론사상도 도량의 사상을 계승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에서 삼론종이 고구려의 혜관에 의해 개척되었다면 그 발전을 주도해나간 사람들도 고구려와 백제사람들이었다.

혜관 이후 일본 삼론종의 중심인물은 고구려의 삼론종불학자 도등이었다. 그에 대해 의연은 ‘도등은 추고 말년(628년)에 고구려로부터 당나라로 들어가 길장대사에게서 삼론을 전수받고 원흥사에 와서 머물러 공중에 전념하였다.’고 썼다. 이로부터 도등도 혜관과 같은 로정을 밟아 일본 땅에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645년 ‘대화개신’이후에 야마토 조정에서 임명한 ‘10사’(10명의 스승)들도 대부분 삼론종 계통의 불학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10사』로 선발된 사람들은 고구려의 대법사 복량을 비롯하여 고구려의 중들인 도등, 혜운, 령운, 상안 그리고 백제의 중들인 혜묘, 혜린, 혜지, 민 등 모두가 고구려와 백제의 중들이었다. 당시 고구려와 백제에서 불교사상의 주류가 삼론종 사상이었던 것만큼 ‘10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삼론종 계통의 불

학자들이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들에 의하여 고대일본에서는 도량 이래의 고구려의 삼론종 철학사상을 계승한 삼론종 학파가 성립되게 되었으며 7세기 전반기 아마또 왕정의 지배사상으로 되게 되었다.

남도6종의 다른 하나는 법상종이었다.

일본에 법상종의 사상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은 백제계통의 불학자 도소(629~700년)이었다. 도소는 백제사람이었던 왕진이의 자손이라고 한다. 그의 제자 중에 역시 백제계 후손인 행기가 있었다. 도소와 행기는 여러 지방을 돌면서 토목공사와 같은 사회사업들에 많이 뛰어들었으며 대중 속에 들어가 포교활동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일본에서 법상종의 부흥은 703년에 당나라에 들어가 법상종 사상을 배우고 그것을 일본에 와서 전파한 지봉, 지란, 지웅 등 신라의 불학자들 때부터였다. 지봉의 문하에서 많은 법상종 불학자들이 자라나 세력을 크게 펼쳤으며 점차 삼론종 세력을 누르고 지배적인 지위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남도 6종 가운데서 8세기 전반기부터 일본불교철학계의 가장 큰 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화엄종이었다.

일본 화엄종의 시조는 로벤(689~773년)이라고 하지만 그에게 직접적인 사상적 영향을 준 것은 후기신라의 화엄종 불학자 심상(?~740년)이었다. 심상은 729년경에 일본에 건너와 대안사에 거처하고 있으면서 찾아오는 중들에게 '화엄경'사상을 강의해주었다. 일본 화엄종의 우두머리였던 로벤도 그를 찾아와 3년에 걸쳐 강의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일본 화엄종의 개척자의 한사람으로 불리고 있다.

심상은 또한 일본에 많은 불교관계 저서들을 가져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가져온 경전들과 불교관계 저서들은 무려 570여권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그가 가져온 불교관계 저서들 가운데는 후기신라의 불학자 원효의 저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것은 그가 원효의 사상을 신봉하

고 있으며 원효의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로벤을 비롯한 일본 화엄종 사상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늘날 일본학자들까지도 로벤 등이 심상을 통하여 신라 원효의 교학 체계 쪽에 보다 친근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이 이 시대 일본인들의 화엄수용의 하나의 태도였다고 평하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결국 심상에 의하여 원효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이름난 불학자들의 저서와 사상이 일본 불학자들 속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 화엄종과 기타 불교철학사상들이 성장하게 되었다.

남도 6종의 다른 종파들인 성실종과 구사종, 룰종의 사상들도 우리나라 불학자들에 의하여 전해진 것이었다.

성실종의 시조는 백제의 불학자 도장이었다. 그는 일본에 건너가 『성실론소』 16권을 지어 성실론 사상을 전파시켰다. 구사종은 신라에서 건너간 것이었다. 구사종의 사상을 전한 호령, 명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라 지평법사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룰종은 당나라 중인 감진(688~763년)이라는 사람이 시조라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룰종사상도 우리나라로부터 전파된 것이었다. 실례로 588년에 일본에 간 백제중 혜충이 불교의 계법을 전했다고 하는 기록이 『일본서기』에 보이고 있다.

이처럼 남도 6종은 거의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조선 사람들에 의하여 성립되고 발전한 것이었다. 남도 6종은 9세기 초에 사이쵸와 구우카이에 의해 천태종과 진언종이 출현한 이후에 점차 약해져갔지만 그 후의 일본불교 철학발전도 남도 6종의 성립으로 이루어진 사상적 토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민족에 의한 불교의 사상적 영향은 또한 원효와 그의 철학사상의 영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후기신라의 불학자 원효의 철학사상은 8세기 이후에도 오래 동안 일본의 불교 철학계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일본의 불학자들은 원효를 신비적인 룡과 같은 존재로 간주하면서 그를 '구룡'(푸른 언덕의 나라에 숨어있는 룡)이라고 불렀다. 의연은 「5교장통로기」라는 글에서 '신라 원효법사는 비룡의 화신인데 청구(우리 나라를 가리키는 말)에서 찬양받고 있다. 그러므로 '향상'(보살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썼다.

많은 일본불학자들이 원효의 저서들을 탐독하고 그의 사상을 자기의 사상형성에 받아들였다.

의연은 원효의 사상에 기초하여 자기 견해를 해설하였다. 그는 「5교장통로기」에서 원효의 독특한 '화쟁사상'을 말하면서 '원효대사의 '화쟁론', '방가종요'는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는 뜻을 들었는데 호상 파괴하고 세우며 이두 뜻을 화합한다.'라고 썼다. 이것은 그가 대립되는 두 측면을 긍정과 부정의 계기를 통하여 화합하는 방식인 '화쟁사상'의 본질을 비교적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아라야식에 관한 문제, 계륵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자기의 사상을 표현하는데서 많은 경우 원효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13세기경 일본의 화엄종을 재흥시킨 이름 있는 불학자 고변도 「광명진언토사권사기」를 쓰면서 원효의 「유심안락도」를 거의 그대로 해설하였으며 그의 '정토사상'에 기초하여 자기의 신앙체계를 세웠다. 그는 원효와 의상의 숭배자로서 그들의 일대기를 그림형식으로 묶은 그림말이 「화엄종조그림, 화엄연기그림」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고변과 동시대의 불학자인 정경도 원효의 사상에 기초하여 종래의 유식사상들을 새롭게 혁신하고 13세기 초에 사그라져가던 일본유식종을 부흥시켰다.

이밖에도 많은 일본 불학자들이 원효의 사상에 공감하여 그것으로 자기 사상들을 근거 짓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원효의 철학사상이 일본불교철학발전에 준 영향의 크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대일본에서 유교와 불교 사상들의 전파와 발전은 거의 다 조선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조선 사람들에 의하여 유교, 불교와 같은 세련된 종교적 세계관들이 전파됨으로써 고대일본에서는 철학적 사유분야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미개로부터 문명으로의 도약이 이룩되게 되었다.

참으로 고대일본의 문화는 조선민족에 의하여 개척되고 선도되었으며 조선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동방문화의 개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슬기롭고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Abstract

Chosun nation's influence on philosophic ideas of ancient Japan

Han, Myeong-Hwan

It is clear that Chosun's culture has influence upon cultural development of ancient Japan. Chosun nation who have a high level of culture advanced early into Japan to propagate a advanced culture and had taken the lead cultural development of ancient Jap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only influence on development of philosophic ideas among these influence.

Chosun nation as Goguryeo, Baekje, Sinra propagated a polished philosophy of religion like Confucianism and Buddhism. So ancient Japan developed the field of philosophy and jumped from savage to civilization.

Key Word

philosophic ideas of ancient Japan, Confucian ideas of ancient Japan, Buddhism of ancient Japan, Wang In, Dam Jing, Won Hyo